



IMF 극복을 위한 지대포장산업의 역할



한국지대공협협동조합
전무이사 李德基

1. 머리말

우리나라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금융 지원 사태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된 시기를 작년 10월말 경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IMF 한파로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맞고 보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가들을 위시하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가호호의 가정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심각한 상태에서

- "IMF 한파!"
- "IMF 위기!"
- "IMF를 이기자!"
- "IMF를 극복하자!"

등 등의 부르짖음을 모든 분야에서 외치며, 어수선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에는 IMF사태를 몰고 온 환란이 누구 잘못 때문에 또 어디서부터 빚어진 것인지를 밝히자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라고 보아,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어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하고 한심하게 지나버린 과오만을 논하기 이전에 너 나 할 것없이 하루 속히 불안감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안정된 옛날로 돌아가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용기와 지혜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며, 모두가 합심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변화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여겨본다.

정부나 재계에서는 IMF 극복과제의 최상책으로 수출확대와 상품의 고급화 및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의 실정이 공통적이라고 볼 때 업종의 분야별로 논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겠으나, 지대포장업계의 형편을 감안하여 IMF 사태를 맞은 이후 업계에서 당해야만 했던 난국사항과 나름대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등에 대하여 참고삼아 열거하고자 한다.

2. 난국 사항

2-1 원·부자재 문제

IMF 사태를 맞이하여 제일먼저 당하게 된 가장 어려웠던 난국이 바로 원·부자재 구입난과 현금결제의 난으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대생산의 원자재는 크라프트지로서 크라프트지를 제조 생산하는 원료는 바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펄프인데,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보니 환율의 인상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은 물론이요 그 인상된 가격으로 현금으로 지불하여야만 하였었고, 한동안은 현금을 주고도 원자재의 구입이 어려웠던 실정을 뼈저리게 당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조업단축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판에 더더욱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부자재도 역시 수입품이던, 내수품이던 가릴것 없

이 가격의 인상과 함께 현금거래만이 성립되어 구입이 가능하였으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었다.

2-2 부도어음의 처리문제

원·부자재 구입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가공납품과 제조 생산납품을 가릴 것 없이 수요처에서의 형편없는, 단가의 인하는 생산원가도 못되는 가격인데도 여러면에서 납품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의 그 대금의 수급은 현금이 아닌 어음인데, 결제일자의 장·단기간을 고사하고 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는 길도 막연하지만, 결제 일이 도래되었을 때는 부도어음이 되고 보니 경제적인 부담은 그 부도 어음 액의 배로써 기업체는 이중 삼중으로 자금난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 허다한 실정인 것이다.

2-3 은행거래와 금융문제

난국사항을 열거할 때 금융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30대 재벌현황으로 부채비용 518%라는 제목하에 기업의 빚이 자본의 5 배라 한다.

빚없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마는 은행대출금의 상환독촉과 아울러 이자율의 인상으로 이자 지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운영난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 근로자의 노임문제 해결책이 난감하여 임금체불은 물론이요, 기타대금 결제문제등으로 기업의 운영난을 고려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하고 사업의 귀추를 논하게 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위기극복 상황

기업체의 형편에 따라 특별히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면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1 구조조정 문제

먼저 구조조정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여 인사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따른 노임형태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든다면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감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활용하며, 생산공장은 지방에 본사를 두고 서울시내에 설치한 서울사무

소를 폐쇄하여 전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3-2 생산제품의 기술적인 연구

원·부자재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생산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생산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있는 대가를 받음으로써 경비절감과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다.

3-3 은행거래의 현실파악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50대 50으로 지원했으나 IMF한파로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운전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기업들은 은행거래에 있어서 전보다는 기업체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신용거래로서 재무제표의 충실성을 보여주고, 금리문제 등 여러면을 감안하여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유리한 점을 찾아서 현실에 입각한 금융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4. 지대포장산업의 역할

지대 및 쇼핑백은 주로 국내용이 많지만 일부는 수출상품을 포장해서 또는 쇼핑백 등은 직접 수출도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강화하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지류포장인 지대 및 쇼핑백은 환경정책상 사용규제 내지 사용감소 대상이 되고 있는합성수지제 PP대 또는 합성수지 쇼핑백의 대체재로서 지대 및 지제쇼핑백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본다.

사용을 마친 지대 또는 쇼핑백 등 포장 폐기물은 95%이상이 회수되어 Recycle 재자원화 되고 있다.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만일 회수하지 않고 대지위에 방치한다면 자연 분해기간이 50년내지 100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합성수지 포장의 사용규제 또는 사용감소나, 회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대 및 지류쇼핑백에 비하여 회수 재처리 비용이 간단하지 아니하며, 처리시의 발생공해도 문제가 크다는 주

장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대 포장이 IMF극복을 위하여는 지대포장의 신제품 개발과 환경친화 포장의 연구로 수출증대를 기하고, 직접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보유고를 늘리는 일 일 것이라 생각한다.

금 98년 7월1일부터 EU에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거, EU역내에서 거래되는, 다시 말하면 EU역내 내수거래 상품포장은 물론, 우리나라등에서 수입된 수입한 국상품 포장에 대해서도 중금속등의 함량규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크라프트 지류포장의 중금속함량은 없거나, 미미하여 문제가 되자 않지만, 이와 같은 세계각국의 포장에 의한 무역 규제에 대하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2. 결론

서두에서 말했듯이 IMF 극복의 과제로서 타 업계와 같이 수출입 및 투자문제를 논할 수 없는 것이 지대포장업계의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의 현사정을 볼때에 IMF사태 이후의 발생된 부도로 인한 도산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업종의 기업체가 많지 않으므로 자랑할 것은 없겠으나 부도업체가 한 기업체이고, 운영상 어려움 끝에 폐쇄한 업체가 한 업체뿐인데, 그 두 업체도 IMF사태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업체이다.

“벌써 IMF를 잊었나? 경제불감증에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으며

“나는 해고 되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잊었다”

라는 등의 한심스러운 말 들만 나와서는 안되며, 이렇수록 우리는 자세를 가다듬어 재기해야 할 것이다.

“IMF가 뭐길래?”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다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업계에서는 국내사업으로 만족할 것은 아니지만, 기업체는 적자운영을 면하는 방안을 내세울 일이지 제품판매시 생산원가도 안되는 단가로 판매하여 불량판매고의 욕심만을 채워, 무모한 경쟁의식으로 덤핑행각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적자운영 없이 도덕적이고 상도의 상 신사적인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대포장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수요처에서도 아낌없이 정의롭고 적절하고 타당한 단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을 앞세워 부도없고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지대포장수용가에게 우수한 지대를 원할이 공급하여 유통을 원활케 하는 것이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길이며, IMF극복을 위한 지대 포장업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한 광고 효과를원하십니까?

이제 「**골板紙包裝·物流**」紙가
한국의 지류포장 전문잡지로
세계의 전문잡지와 경쟁하겠습니다.

- 포장관련 정부기관
- 골판지 포장 제조업체
- 골판지 기계 제작업체
- 잉크 제조업체
- 접합용 접착제 제조업체
- 물류System 자동창고 펠리타이저 제작업체
- 컨테이너·특장차 제작업체
- 골판지 기계 무역업체

- 포장·물류 관련단체
-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 Corn Starch 접착제업체
- 골판지 인판 제조업체
- 자동 결속기·PP밴드 제조업체
- 펠리트 제작업체
- 골판지 원지 무역업체
- 골판지포장 기타 부자제 업체



韓國골板紙工業協同組合
편집 문의 : 편집실 (02) 594-0381 ~ 4